



◇부산시청 앞 단식 28일째(10월 31일 현재)인 지울스님은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결코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10만명 동참하면 단식 풀겠다”

지울스님 31일 현재 단식 28일째... 묵언 돌입 조계종, 종단차원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서 영남지역 교수 60여명 불자 108명 지지선언

10월 31일 현재 단식 28일째인 지울스님은 6일째 묵언중이다. 지울스님의 묵언은 정부에서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기 전에는 결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시정 옆에 세워진 봉고차를 속소로 삼고 있는 스님은 조계종 종단 관계자에게 “불자 10만 명이 도룡뇽을 살리는 방생운동에 동참하면 단식을 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단은 지울스님과 도룡뇽을 살리는 것을 새로운 방

생(放生) 운동으로 인식하고 종단차원에서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를 통한 모집과 교사, 교수, 환경단체, 불자 등을 중심으로 각계의 관심이 결집되고 있다. 24일에는 경남 지역 교사 108인이 도룡뇽 소송 지지 선언을 했다. 부산 교사 108인 선언에 이어 교사들의 두 번째 참여다. 이들 교사들은 도룡뇽 소송에 대한 공동수업안을 만들고 29일부터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은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룡뇽이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수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청와대 옆서 보내기,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영남대 김종철 교수, 부산대 김석준 교수,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교수 60여명이 교수 지지 선언과 천성산 도룡뇽 영상 상영, 감동과 자비를 가졌으며 11월 1일에는 불자 108인 선언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불자들은 “천성산의 생명들을 위해 목숨 걸고 묵언히 걸어가는 한 수행자가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다”며 “불자들이 함께 역사에 기록될 방생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관련 12월말 경 <환경과 생명> 주최로 자연의 권리(천성산) 조속철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모의 환경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감로사, 10월 27~31일

부산 감로사주지 혜충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제40회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700여명의 불자들이 제를 수지한 이번 수계산림 법회에는 전 해인사 주지 가산 지관 스님이 전제대화상으로 5일간 보살계를 설했다. 감로사 천화계단은 1951년도 6·

25 피난시절 자운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큰스님들이 감로사에 모여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불의 지름길”이라며 계단을 세운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봉행해 왔다. 한편 11월 17일 삼천불 삼천매 참회 기도회관의 원만 신축을 염원하는 천일관음기도 중 제10차 관음백일기도를 봉행한다. (051)809-0926 천미희 기자



◇감로사 삼천불전에서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지관스님의 보살계 입재법문을 경청하는 모습.

기장군 첫 수륙천도법회 봉행

8일 기장체육관... 죽서 바닷가서 공육진 선생 추모·심청전 공연도

바닷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수륙천도법회가 11월 8일 기장 실내체육관과 기장 죽서 바닷가에서 열린다. 무속인들에 의한 용왕대제가 마을마다 열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기장 내부정사 설교 스님이 마을 주민들의 정서를 불교적인 의식으로 감싸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설교 스님은 여법한 행사를 위해 수륙천도법회 봉행위원회를 꾸리고 봉행위원장은 남구, 수영구 사암연합회 회장인 지원 스님이 맡았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열리게 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시월상달 제 1회 기장군 수륙천도 법회’는 지역민들의 축

제와 법회로 승화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지역 사찰인 나무정사가 수륙천도법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월전 마을 주민들은 행사 음식에 쓰일 된장과 고추장, 떡 등을 보시하는 등 마을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행사가 되고 있는 것. 이날 수륙천도 법회는 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1부 법회와 공육진 선생의 공연에 이어 죽서 바닷가로 이동한 후 불교 범음법회 의식으로 열리는 영혼 천도 의식의 순서로 열린다. 특히 <심청전> 공연은 공육진 선생의 춤과 장으로 지극한 효심의 심정을 되살려내며 지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051)722-3393 천미희 기자

대구음악박람회 열려 사찰음식 큰 호응 받아

향토음식 발굴과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03년 대구음악박람회가 지난 10월 25, 26일 양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구시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음식, 우리문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출판자 중 자연식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 사찰음식을 출품한 청도군 수법사(주지 지수)는 고추장과 된장으로 버무린 감자장찌, 죽순간장, 양배추 톨김치 등 50여 점을 출품했다. 박원구 기자



◇6대 종교지도자들과 합창단원들이 종교음악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를 합창하고 있다.

깊어 가는 가을, 6대 종교인들이 함께 한 부산종교음악제가 열려 화제를 모았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스님)는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1회 부산종교음악

제와 함께 시국 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불교합창단의 찬송가, 원불교 합창단의 성가 한대 어우러진 이날 음악제는 6대 종교에서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영 부

“종교인들이 시국안정 주체되자”

6대 종교지도자 기도회·부산종교음악제

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음악제에 앞서 가진 시국안정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기독교 방영식 목사, 원불교 최진길 석포교당 당 교무, 천도교 박오권 북부산교구장이 ‘시국안정을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며 나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 이어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대장부, 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하며 종교인과 국민모두는 시국안정의 주체

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2부 행사로 마련된 음악제에는 축시 낭송, 미용사 바라밀다 합창단 시온중창단의 부산원음합창단의 공연이 선보였다. 특히 사찰 합창단 지휘자들인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가톨릭가 중창단은 찬불가 <우리지>와 미국 민요 메들리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은 “내년에는 전국 종교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음악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리셉션

대구불교방송 개국 7주년 음악회도

대구불교방송은 11월 6일 오후 6시 대구 인터블로그호텔 컨벤션홀에서 ‘개국 7주년 및 안동·포항중계소 개국 축하 음악회와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개국 축하 음악회는 영

남대학교학 오케스트라지휘자 강주현의 협연으로 소프라노 고선미, 테너 김형국 등과 대구불교계 연합합창단(동화사 병합합창단, 대구사원연합회 합창단, 진각중 금강합창단이 연주회를 펼칠 계획이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은 “안동·포항 중계소의 개국을 대구 불교방송의 제2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별로 방송을 송출해 왔으며, 오고 말했다. 1996년 11월 11일 개국한 대구불교방송은 FM94.5Mhz로 대구 및 인근지역에 방송을 송출해 왔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포항 FM105.5Mhz, 안동 FM97.7Mhz 주파수로 광역화 시대를 맞게 됐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풍 ‘매미’ 피해 도성암 통도사, 복구성금 전달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30일 창녕 도성암을 방문해 태풍 매미로 희생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실된 요사채의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도성암은 태풍 매미로 요사채 유실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천미희 기자

자폐아 국제심포지엄 열어 연꽃아이들, 부모상담도

불교계 최초의 자폐아 교육기관인 울산의 ‘연꽃아이들’은 11월 8일 연꽃아이들에서 국제 석학 초청 자폐 관련 장애 국제 심포지엄 및 부모 상담회를 연다. ‘자폐관련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조기통합지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발표 외에도 자폐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시간을 갖고 자폐아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052)268-6702 천미희 기자

가람소리 합창단 발족 동명불원, 창단법회 봉행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담은 노래로 사바세계를 장엄하겠다는 원력으로 가람소리합창단이 창단됐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도관) 가람소리합창단은 10월 27일 그랜드호텔에서 창단법회를 갖고 음성포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창단법회에서 38명의 가람소리합창단원들은 <바람 부는 산사> 등의 찬불가를 공양 올린 후 사부대중과 함께 <사랑으로>를 합창했다. 천미희 기자

지공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만 65세 이상 노년층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포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권 일반회원권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리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원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공원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전신치사에 의하여 설계된 노안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호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력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공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공원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 교양대학 개설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강좌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합 불교 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사활점이 되고자 합니다.

과목	강의내용	담당교수	강의시간
불교전통 의식반	사물 다루는 법, 도량서, 침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재공의식	철운스님, 상진스님, 대원스님	화·목요일 15시~17시
기초불교 교리반	기초교리, 금강경, 포교론, 서예	운오스님, 신명스님 외	화요일 15시~17시

- 원서접수: 2003년 11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2003년 11월 13일(목) 오후 4시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본 대학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경기북부중무원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TEL. 031)864-0033, FAX.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간(肝) 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아리에 넣고 원경 97마리를 달인 뒤 액체를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땅속에 묻어둔 빈 향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경가 더 더들어 가까지 교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진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종 (민속농원)